



**오 르 도  
행 복 칼 럼**  
전대식  
부산일보 노조위원장

# 노트르담 화재로 본 한국과 프랑스 차이점

지난 4월 17일 강원 고성·속초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의 상처가 가시기도 전에 전 세계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화재가 발생했다. 프랑스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 화염에 휩싸인 인류 유산이 생중계되면서 프랑스 시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도 안타까워했다.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 보도를 보면서 필자의 눈에 띈 건 '기업들의 기부 행렬' 기사였다. 대성당 복원을 위해 기업들이 나선다는 것이었다. 화재 발생 뒤 하루 만에 8억 유로(약 1조 원)가 모였단다. 기부 기업들의 명면도 화려하다. 구제 상표로 유명한 케링그룹은 1억 유로(약 128억 원)를 내놓았다. 화장품기업 로레알은 1억 유로, 튀이빙통 모에에네시(LVMH)는 2억 유로를 기부하겠다고 했다. 화장품기업 베랑쿠르가론 1억 유로, 정유기업 토탈 1억 유로 등 릴레이 기부는 자발적으로 이뤄졌다.

프랑스 땅을 벗어나 바다 건너 미국 애크사도 거액 지원 의사를 표시했다. 불에 탄 대성당과 이름이 같은 미국 인디애나 주 노트르담대학교는 10만 달러(약 1억 1400만 원)를 보낸다고 했다. 연 대라는 이름으로 세계문화유산을 복원하는 데에 피부 색깔과 국적은 의미가 없었다. 세계 유산 기업들의 동시다발적 기부 행렬에서 흔히 높은 신분에서 걸맞은 도덕적 책무를 의미하는 서양의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정신을 읽었다면 너무 과한 해석일까.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 관련 기부 소식으로 지구촌이 훈훈한 가운데, 우리나라 기업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와 전혀 먼 사건 보도는 씁쓸함을 넘어 한심하게 다가왔다.

대성당 화재 소식이 전해진 17일, 환경부 조사 결과 LG화학, 한화케미칼을 포함한 전남 여수 산업단지 내 기업들이 대기오염 물질 측정업체와 짜고 미세먼지 원인물질 수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

났다. 측정업체들은 대기업체들과 공모해 2015년부터 4년간 총 1만 3006건의 대기오염도 측정 기록부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발급했다. 이런 조작 수치 탓에 실제 대기오염 물질 배출 농도는 33.6%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 덕에 기업들은 배출 부과도 면제받았다고 한다. 기업들이 배출저를 거래하는 동안 그 지역 주민들은 체감하는 대기오염도 발표된 오염수치 속에서 혼란을 느끼며 마스크를 쓰고, 집의 창문을 잠갔을 것이다.

문제가 된 일부 대기업은 뒤늦게 '참담한 심정', '막중한 책임 통감', '머리 숙여 깊이 사죄', '어떤 경우에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 등 국민들에게 너무나 익숙해 이제는 하나 하나 한사와 말을 내놓았다.

지난 1월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8 기업호감지수(CFI)에 따르면 기업 호감도는 53.9점이었다. 2016년 47.6

점에서 2017년 55.8점으로 올랐다가 다시 하락하는 추세이다. 청년 실업의 늪에서 일자리 창출과 투자가 국민 기대에 다소 못 미쳤고 대기업 소유주 가족의 갑질과 폭언, 막달, 기업 오너의 횡령, 직원 폭행 등 사회적 물의를 잇따르면서 이미지가 나빠졌다는 분석이다. 앞서 언급한 '배출 수치 거래' 같은 범죄 행위도 그런 부정적 이미지 형성에 크게 일조할 것이다.

따지고 보니 2005년 4월 5일 발생한 강원도 양양군 낙산사 화재(이 불로 보물 제497호 낙산사 동종 소실), 2008년 2월 10일 발생한 국보 1호 송례문 화재 등 전 국민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발을 뚫고 굴러가 했던 대형화재에서 우리 기업들이 기구나 지원을 했다는 소식은 들은 기억이 희미하다. 송례문은 '메이데이 인 코리아' 문화제이고 노트르담 대성당은 글로벌 문화유산이라 우리 기업들이 지갑을 여는 데 인색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경경유착'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정치와 권력은 과도한 애정을 보인 재계 아닌가.

우리 역사를 돌이켜 보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비롯한 사회 공헌 행위는 먼 나라의 잘 사는 사람들과 기업들만의 일은 아니었다. 우당 선생의 선생은 1910년 을사늑약으로 일제가 나라를 빼앗아 전 재산(요즘으로 치면 600억 원 상당)을 처분한 뒤 일가족 전부 만주로 이주해 신홍문학교를 설립하고, 독립운동을 키웠다. 우당 선생의 정신은 현재까지도 이어지는데 그의 이름을 딴 우당장학회는 우리나라 1600여 개 장학재단 중 독립유공자 후손을 돕는 유일한 장학재단이다. 경북 안동에 99칸 저택을 가졌던 석주 이상룡 선생. 그는 국권이 강탈되자 200억 원에 이르는 재산을 팔아 독립운동에 남김없이 썼다. 독립운동가 이외에도 우리 선조는 나라가 누락되기에 처할 때 자신의 몸과 재산을 아낌없이 바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몸소 실천했다.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가 일어나자 정부와 지자체들은 앞다투어 각 지역에 있는 문화재의 화재 안전진단에 돌입했다. 이번 기회에 문화유산 안전문제도 짚어 봐야겠지만 이와 함께 우리 사회의 사회 공헌 문화를 되새겨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 “지계골에 처음부터 지계는 없었다”

꼭태욱의 바람고개 이야기  
문헌동 지계골의 진실

지계골에 지계가 있었다, 없었다. 문헌동 토박이 주민과 원로 분이 뜨거운 논쟁을 벌이고 있었다. “지계가 있었으니 지계골이라 했겠지.” “뒤흠라니까? 옛날에는 고개가 하도 험해서 지계를 지고 가면 사람이 쉬었다 간다고 지계골이라 했다 카던데.”

어느 쪽 말이 맞든 이 논쟁은 2019년에도 어김없이 되풀이 되고 있다. 왜일까? 정확히 지명 유래를 몰라도, 대연동의 뒷골은 언덕과 골짜기가 합쳐진 말미잘이여 거다. 당곡(부산문화회관과 유엔평화공원 근방)은 담집이 있는 골짜기이겠거니, 대룡골(대동문화센터 일대)은 통수지리로 용과 관련 있을 테고, 용당동의 갖골은 선비가 갖을 쓰고 있는 형상의 골짜기이겠거니, 문헌안동네의 고평골은 꼬불꼬불한 고평의 속처럼 생긴데서 유래했을 테고, 감만동의 양지골은 햇볕이 잘 드는 곳이었거나, 미꾸라지골은 작은 하천이 꼬불꼬불하거나 미꾸라지가 많이 서식했거나, 무제골(무지개골)은 물안개가 끼고 해가 나면 무지개게 자주 생겼거나, 이리 골짜기를 지계골에 비해보면 지계 같은 무언가 있었기에 그렇게 불렀을 것이라는 유추가 성립된다. 그러나 말발 쏘는 사람들이 실랑이 벌이기 좋은 소재가 되기도 한다. 용호봉에도 이기대 초입의 '동생말'이 옛날에는 '동산말'이라고 불렀다는 설이 있으나 지계골의 지계와는 다른 혼동거리다.

그러니 이 지계골의 '지계'는 좀 복잡한 설명이 필요하다.

그런데 방해를 주었다. 지금의 문헌고개(대연고개) 고갯마루에 이르러면 하릴 사람이 등짐을 지는 지계의 '가지'와 같은 길이 나왔기 때문이다. 우룡산으로 향하는 길이다. 임진왜란 때 조선군이 왜군을 맞아 전투를 벌였다고 전해지는 장자터로도 이어진다. 언제부터 이 길이 지계의 가지처럼

났는지 정확하게 아는 이가 없다.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은 더더욱 등짐을 지는 지계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감만동 무제골(무지개골)을 한자로 '홍곡(紅谷)'으로 표기하듯, 차리리 지계골을 '홍곡(戶谷)'으로 표기해 왔다면 어땠을까. 오늘날의 지계골 고갯마루는 한국전쟁 때와 1960년 후반 두 번에 걸쳐 평토작업을 해서 지금과 같이 낮아졌다. 하지만 해도 고갯마루가 높아서 버스가 사람을 많이 태우면 뒤로 밀리는 아찔한 경우가 다반사였다고 한다. 아마도 방해꾼 길이 난 것도 한국전쟁 때 아니었겠나 싶다.

원래 고갯마루는 황령산에서 뻗어 내린 산줄기와 우룡산에서 뻗어 내린 줄기가 겹쳐진 높은 지형의 골짜기였다. 이런 지형을 문헌 로터리 쪽에서 보자면 흡사 마루에서 안방으로 들어가는 외쪽의 문으로 보였던 것이다. 이 외쪽의 문이 '지계문'이다. 정확하게 지계골의 '지계'는 외쪽문 또는 지계문이라는 뜻의 순우리말이다. 그럼 외쪽문은 어떤 문인가. 사람이 드나드는 그 집 출입구를 '문(門)'이라 하고, 마루와 방 사이에 하나밖에 없는 여닫이문을 '호(戶)'라 한다. 문호를 개방한 다 합은 집 안팎을 활짝 열어젖힌다는 뜻이다. 여기서 마루와 방 사이의 여닫이문이 외쪽의 문이고 지계문이다. 한자로 표기할 때 '호(戶)'로 쓴다. 등짐을 지는 지계도 한자로 같은 '호'로 쓴다. 그 뜻이 전혀 다른데도 한자까지 같으니 더 헷갈린다. '옛날부터 지계골을 '호곡'이라 하든지 '지계문골'이라 했으면 어땠을까.

어떤 원로 분은 연탄 두 장을 한개편에 집을 수 있는 아가리가 널따란 집제로 알고 있다면서 '집계골'이라고도 했다. 지하층 2호선 지계골역이 생기기 전까지 '새마을(고개)'로 불리기도 했다. 지계골이 지계골이다. 어느 쪽이든 지계골의 지계 논쟁은 개인이 불식시키기 어려운 문제다. 다만 어떤 이가 묻는다면 "지계골에는 처음부터 지계는 없었다니까요"라고 언제부터는 세울 수 있을 것이다.

## ■ 어린이날 에세이

### ‘오체불만족’ 에도 변치않는 천사의 미소 감만동 소화영아재활원의 놀라운 하루



감만동 소화영아재활원의 '소화'는 본 재활원의 수호성녀인 소화 대려사 성녀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이곳에 있는 아이들이 모두 작은 꽃과 같이 사랑스러워 소화이기도 합니다. 소화의 아이들은 모두 다양한 장애와 아픔을 안고 있기에 옵니다. 한 달 전에 들어온 7개월 슬기부터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도 있고 스무살이 되도록 침대에서만 생활해 온 중증 천구들도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연령과 중증 정도에 따라 꽃의 이름을 딴 동백, 장미, 국화, 연꽃, 매화, 난초, 새싹 방에 나눠져서 문헌적인 방 엄마들과 수녀님의 보호 아래 생활하고 있습니다.

소화영아재활원이 잘 꾸려져 나가는데 또 한 부분 힘을 보태는 이가 있습니다. 2018년 봉사자와 후원자입니다. 2016년에 70주 성당 봉사 단체뿐만 아니라 종교의 상관없이 찾아오는 일반인, 학생, 기업체 또는 가족단위로 오시는 분들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이곳에는 청소, 가져다 주고 개기, 재봉바느질, 아이들과 놀아주기, 주방보조, 설식 봉사, 간호치료실 봉사, 차량봉사, 각종 치료봉사 등 곳곳에 손길이 필요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에게 위대 부모가 되어 준다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나들이도 가고 아이들에게 개척체함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귀한 인연도 재활원의 큰 바람이 되어 줍니다.

아마 재활원에 봉사 오면 놀라게 되는 점이 여러 있었지만 이곳의 물 흐르듯 잘 운영되는 시스템에 크게 놀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설식시간, 유기적인 간호 시스템, 개개인에 특화된 재활물리치료, 다양한 놀이치료, 피딩시스템 등이 모두 아이들을 위해 마련, 실행됩니다. 이 시스템

안에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생활해 나가며 사랑도 듬뿍 받을 뿐만 아니라 좋은 생활습관이 자리 잡고 장애 정도나 태도가 점점 좋아지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정말 재활원에 계시는 수녀님과 선생님들께 큰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이지요.

필자가 많이 놀라고 깨달음을 얻은 부분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솔직히 병상에 누워서 관으로 주입되는 영양분으로 식사하고 목에 뿜는 관으로 호흡하고 시간시간 개를 빼지 않으면 안 되는 아이들이 왜 저렇게 오랫동안 고통 속에 누워 있어야 하는가, 과연 이런 삶이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을 고통 중에 놓아두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가졌었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의 얼굴을 한 번 두 번 보면서 저의 어리석은 생각을 뒤우치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하나 같이 활짝 웃는 얼굴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통 중에 있는 아이들이 웃고 있는 것보다 부모가 되어 준다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살면서 오만상을 찌푸리고 불평불만하며 사는 우리에게 일침을 가하는 미소였습니다. 그래서 깨달았죠. '아, 이 아이들은 정말 천사구나. 이 세상을 위해 죄 없이 태어나 고통 중에 삶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생명의 소중함을 세상에 일깨워 주고 세상을 위해 끝없이 기도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재활원에 천사를 '일현' 하러 온지 벌써 만 5년이 넘었습니다. 매우 짧은 시간이나마

아이들과 놀아주기도 하고 밥도 먹고 청소도 하고 때로는 그저 병상의 아이 등을 두드리며 노래를 불러주기도 하고 손발을 주물러 주기도 합니다. 한뼘씩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 공원에도 가고 체험학습도 하러 갑니다. 그녀는 중에 시간이 흘러 동백방에서 갖나 아기로 들어온 아기가 이층으로 올라가 난초방 새싹방으로 옮겨져 어린이집에도 가는 씩씩한 모습을 보면 참 대견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이들이 자라나는데 필요한 것은 하늘에서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저는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지'라는 소설을 무척 좋아합니다. 발을 받게 된 천사가 깨달아야 했던 세가지. 즉, 사람의 내부는 무엇이 있는지, 사람에게 하라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사람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된 지 모르고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꽃밭이 쌓듯이 사랑은 격정함으로써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만 인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 뿐, 사람이 품고 있는 사랑에 의해 살아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소화의 어린 천사들은 이러한 사랑으로 커나갑니다. 정말 헌신적인 수녀님들과 방엄마와 선생님들의 보살핌과 사랑 속에 잘 자랄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후원과 봉사로 작은 나눔과 사랑의 실천이 계속 이어져나가기 바랍니다.

한수연 소피아(자원봉사자)

## 독자의 소리

독자의 소리는 독자 여러분을 위한 공간입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부산남구신문편집실 ☎ 607-4077, 4078, 1225honey@korea.kr

산행이 물 따라  
산행을 떠나요  
(2019. 5.)

구분	산악회	산행일자(요일)	장소	연락처
대연동	대산산악회	5.12. (일)	경주 도덕산, 자옥산	010-8565-8359
	백호산악회	5.8. (수)	전북 마이산	010-5621-4007
	산사람산악회	5.19. (일)	충남 홍성 용봉산	010-2024-2892
	남구자유산악회	5.5. (일)	전라도 감진~기유도 출렁다리	010-5576-8142
	대송산악회	5.19. (일)	영양 월출산	010-2559-2641
용호동	하나로산악회	5.2. (목)	고창 선운사	010-3837-6206
	용신산악회	5.12. (일)	통영 연화도	010-4647-7051
	청산산악회	5.3(금)~5. (일)	충도, 흑산도	010-8008-2087
	해월산악회	5.15. (일)	보은 속리산	010-3560-3409
	산이름산악회	5.26. (일)	경북 군위 마이산	010-9329-3560
용당동	황경산악회	5.5. (일)	전북 현위 44산	010-3575-3448
	용호산악회	5.26. (일)	지리산비래봉	010-9497-4575
	여명산악회	5.5. (일)	거제 이수도	010-2582-4254
	청심산악회	5.26. (일)	전북 남원 지리산 비래봉	010-2736-7553
	감만동	용마산악회	5.12. (일)	삼시순례
백운산악회		5.26. (일)	통영 양산	010-2861-3177
오솔길산악회		5.19. (일)	영주 소백혈족	010-8287-1192
우암동	우일산악회	5.5. (일)	보성 일일산 철쭉산행	010-3595-5848
	문사산악회	5.12. (일)	고성 옥천사	010-8466-8662
문헌동	원부리산악회	5.19. (일)	충주 북박위산	010-4564-7789
	산누리산악회	5.24. (금)	한라산 철쭉산행	010-4035-3432

\* 산행일정은 산악회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우리지역 일자리 알림판

☎2019. 4. 23. 기준

회사명	근무지	모집직종	모집인원	모집기간	임금조건	연락처
행복남구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대연동	사회복지사	1명	19. 4. 23. ~채용시	월급 1,800,000원	051-634-2800
현대산업	대연동	배관청소원	1명	19. 4. 23. ~채용시	월급 2,000,000원	010-3870-7113
양문어린이집	감만동	어린이집 조리사	1명	19. 4. 23. ~채용시	월급 1,745,150원	051-715-9882
씨이스트웨스트	문헌동	무역사무원 (영어)	1명	19. 4. 23. ~채용시	연봉 21,000,000원 ~24,000,000원	051-642-2123
주식회사 케이와이메디텍	문헌동	외국기기 영업원	2명	19. 4. 23. ~채용시	연봉 24,000,000원 ~25,000,000원	051-636-9979
치형외과	용호동	피부관리사	1명	19. 4. 23. ~채용시	연봉 24,000,000원 ~24,500,000원	051-628-7508
한누리어린이집	대연동	보육교사 (누리/시간제)	2명	19. 4. 23. ~채용시	월급 973,000원	051-635-3064
㈜유일미디어	문헌동	방송장비 설치 수리원	1명	19. 4. 23. ~채용시	월급 2,000,000원	051-802-9558
씨이스트웨스트	문헌동	영업기획 관리 지원 사무원	1명	19. 4. 23. ~채용시	연봉 22,000,000원 ~28,000,000원	051-642-2123
㈜한우리종합관리	대연동	아파트 전기관리원	1명	19. 4. 23. ~채용시	월급 2,800,000원	051-626-9756

\* 대한민국 모든 일자리 정보(worknet)와 연계  
\* 남구 취업정보센터 ☎607-4347~8 Fax. 607-4349

## ■ 명예기자의 시선

울긋불긋한 봄의 화려함으로 가득해야 할 4월은 산불로 인해 잔인한 달이 되었다. 특히 강원도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지역민들의 물질적인 피해는 물론이고, 마음의 상처 또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물과 불은 상극이라 오랜 가뭄으로 건조한 날씨가 쉽게 불로 이어졌으니, 당시 절실했던 것은 빗물이었다.

동양인은 물을 창조와 원천으로 본다. 중국 태고적 전설상의 천자인 뱀고(盤古)가 죽자 그의 눈은 해와 날이 되었고, 피는 강과 바다가 되었으며, 뼈는 언덕과 산이 되었다고 한다. 이 뱀고의 피로 만들어진 물, 이것은 우주 생명체의 원천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신화에는 천상의 존재와 지상의 존재가 물에서 결합하는 형태가 많다. 고구려 건국신화에서 동명왕이 되는 주몽의 모친

##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에서 겸손을 배운다

인 유화는 물의 신인 하백의 딸로 천제의 아들 해모수와 물에서 만난다. 또 거락국의 김수로왕과 결합하는 허황후도 바다를 건너왔다.

한편 노자는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上善若水)'라고 하여 물을 도의 최고 경지에 비유하였다. '최고의 선'이란 관념적 존재를 설명하기 어려우니 물을 보라는 것이다. 물의 성질이 곧 최고의 선과 같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물의 성질은 어떠한가? 물은 만물이 해택을 주지만 남과 지위를 다투는 일이 없고 모두가 싫어하는 낮은 곳에 존재한다. 물은 색도 맛도 냄새도 없는 담박함을 지녔으며, 온갖 찌꺼기를 모두 안아 다시 맑게 걸러낸다. 그리고 물은 장애물을 만나면 빙 둘러가거나 넘

어거며, 쉬지 않고 끊임없이 넓은 바다로 나아가는 부지런함을 지녔다. 이것이 물의 속성이다.

그러므로 선인(先人)들은 누구나 이 물의 성품을 닮고자 했으며, 물의 도(道)를 배우고자 했다. 동양화 철벽아래 바위에 앉거나 었던 채 하염없이 물을 바라보는 그림(관수 도觀水圖)이나 '벗과 함께 쏟아지는 폭포물을 바라보는 그림(관폭도觀瀑圖)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는 '관수'와 '관폭'을 통해 물의 품성을 배우고자하는 것이다. 장자의 산목련에는 '군자의 사람은 담담하기가 물과 같고, 소인의 사람은 달콤하기가 단술과 같다(君子之交淡如水, 小人之交甘若醴)'라는 말도 있

다. 이른바 군자는 이익으로 사귀는 것이 아니고 물처럼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포용하며, 변함없이 우정을 이어간다는 뜻이다.

그러나 물은 마냥 순하게 아래로 흐르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천하에 물보다 부드럽고 약한 것이 없지만, 굳세고 강한 것을 공격하는 것 역시 물보다 나은 것이 없다. 물은 강한 바위와 만나면 부딪쳐 솟아오르기도 하고, 때론 바위를 부수기도 한다. 또한 물은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처럼 해일이 되어 모든 것을 쓸어버리기도 한다.

물아보면 지금 우리 사회는 물과 같은 품성이 매우 부족하다. 너도나도 불이되어 상대를 태우려고 한다. 매일 언론을 통해 쏟아지는 불같은



강화면, 고사관수도, 지본수목,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독성은 이성을 잃은 지 오래다.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을 보며 우리 모두 겸손을 배울 때이다.  
이성혜(문학박사)